



중국은행들

대규모 부실자산 처분 예상

이경아 연구원

■ 부실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은 빠른 시일 내로 중국 금융기관의 불량채권(troubled loans) 처분이 대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.

- 부실증권 투자(distressed loan investment)를 전문으로 하는 홍콩 소재의 펀드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의 결과 발생한 대량의 무수익여신(non-performing loan)을 처분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량채권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함.
- 아울러 기존의 부실채권 가격이 공급증가로 인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힘.

■ 홍콩을 통한 기업공개 이후 중국 대형 은행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회계정보 투명성 개선과 무수익여신의 처리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음.

- 중국 은행감독당국은 그 동안 은행들이 부실대출자산의 규모를 축소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보고 부실 자산에 대비한 완충자본을 늘리도록 요구하여 왔으며, 감독당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은행들이 부실채권 처분 및 대차대조표 건전성 개선에 대한 압력이 증가

■ 부실채권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최소 5,0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로 편차가 크지만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실증권 투자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음.

- 부실증권 투자전문 사모펀드들은 중국의 회계보고가 과거보다 투명해졌으며 이에 따라 처음으로 중국부실채권 편입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음.
- 반면 골드만삭스,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들은 자기자본 규제를 제한하는 볼커룰(the Volker rule)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련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.

- 중국은행들은 관심 있는 투자자들과 직접 거래를 시도하거나 부실증권 전문 자산운용사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처리를 고려중이라고 전해짐.
- 부실증권 운용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회사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전하면서 중국이 자본화될수록 채권자 및 투자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부실채권 투자가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함.

(Financial Times, 12/30)